

## 한국전쟁기 대한민국 교도관 양성을 위한 월간 『형정(刑政)』의 매체 전략 연구\*

오 현 석\*\*

###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형정(刑政)』 수록 문학작품의 심성 |
| 2. 대한민국 교도관 양성을 위한 월간 『형정(刑政)』의 역할과 전략 | 의 단정(端正)과 세심(細心)        |
|  | 4. 나가며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전쟁기 법무부 형정국에서 교도관 양성과 교양 함양에 활용하기 위해서 발간한 월간 『형정』의 창간호부터 제8호까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월간 『형정』은 1952년 12월에 창간하여 법무부 교정국에서 발행한 잡지로 교도소와 교도관을 양성하는 교도관 학교(현재는 법무연수원) 등에 보급되었던 매체이다. 한국전쟁 당시 혼란 시대 상황 때문에 교도관 양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법무부는 단기 교도관 제도, 자체 선발 제도 등을 활용하여 교도관을 양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형정국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2447). 본 연구는 2023학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학교 조교수

은 교도소(형무소)를 관리하는 교도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입 교도관의 현장 적응을 돕고, 교도관이자 공무원으로서 업무능력을 갖추며, 당시 정부가 요구하는 시대상과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교도관 양성이 필요했다. 본 연구는 『형정』이 이러한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여 교도관 양성 교재이자 지침서로 활용된 점에 주목하여 매체 전략을 분석했다. 『형정』에는 당대 유명 작가, 특히 중군작가의 작품과 학자들의 글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는 교도관의 심성의 단정(端正)과 세심(細心)에 많은 부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형정』지는 단순히 교도관들의 교양과 오락을 위한 매체가 아니라 교도관이 1950년대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와 국가관을 내면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형정』, 『교정』, 『새길』, 한국전쟁기, 교도관, 교도소, 수형자, 법무부, 교정본부, 감옥문학, 중군작가

## 1. 들어가며

해방 이후 대한민국 법무부 형정국에서 교도소 구성원들(교도관<sup>1)</sup>, 수형자)을 위해 발간한 잡지는 크게 『새길』, 『형정(刑政)』, 『교정(敎正)』을 들 수 있다. 이 3종의 잡지에는 각 매체의 발간 목적에 따라 국가 정책에서부터 개인의 신변잡기까지 다양한 종류, 형태, 필자의 글이 수록되었다. 특히 교도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생산, 배포되었던 매체였기 때문에 수록된 글들은 교도소와 교도관, 수형자(죄수)와 관련된 주제와 소

1)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형정과 관련된 용어들은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기술하되 필요에 따라서 1950년대 당시 자료에 기록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교정본부(형정국, 교정국), 교도관(형무관), 재소자(수형자, 죄수), 교도관 학교(형무관 학교), 교도소(형무소, 감옥) 등

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이 매체는 현대 대한민국의 감옥 문화·문학을 대표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형정』과 『교정』, 『새길』이 배포되었던 장소와 수량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나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잡지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또한 교도소 내의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외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지들을 생소하게 생각하거나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교정 관련 잡지들은 교양, 문화, 오락적 목적을 지닌 일반적인 문예지와는 달리 발간 주체인 국가와 국가기관의 의도한 목적이 내재 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대 사회를 미시적, 거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들(수형자)의 교화와 재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목적과 1950년대 당시 정치·사상범의 이념 문제,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는 교도관들의 업무 효율성 등의 목적이 표면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내재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대중매체와는 달리 교도소 잡지 연구는 당대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국가권력, 이념 대립 등에 매우 민감하고 은유적으로 표현된 텍스트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잡지의 간략한 특성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발행되었던 『형정』과 『새길』<sup>2)</sup>은 마포형무소에서 인쇄되어 법무부 산하 기관과 전국 형무소에 배포되었다. 『형정』은 형무소를 관리, 감독하는 교도관들의 직무교육, 직무재교육, 국가 행형(行刑) 지침 하달, 국가관 확립 등을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반면 『새길』은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재교육, 교양, 국가관 확립 등의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국에서 발간한 잡지이다. 『교정』은 『형정』이 제호를 변경하여 1965

---

2) 실제 『새길』은 재소자들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1948년 4월 창간했지만 창간 이후 한국전쟁 등의 이유로 정간되었다가 1953년 5월 속간되었다. 속간 이후 현재까지 계속 발행되고 있는 잡지이다.

년부터 발행되었던 잡지이다.

1950년 초 전국 21개 형무소<sup>3)</sup>는 각각 위치한 지역과 공간의 특성에 따라 관공서나 일반사회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을 전수할 목적으로 형무소 내 여러 공장을 운영했다. 그 중 마포형무소<sup>4)</sup>는 일제강점기 당시 이미 형무소 내 인쇄공장<sup>5)</sup>을 운영하고 있어서 조선총독부와 법무부 관련 인쇄물을 발행했다. 해방 이후에도 마포형무소의 제지와 인쇄 기계를 활용하여 재소자들이 관련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sup>6)</sup> 또한 1950년대 한국전쟁 중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지(製紙)공장이 가동되었다. 종이 생산과 인쇄는 당시 정부의 각종 문서 생산과 교육,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했던 마포형무소가 그 역할을 담당했다. 한 예로 한국전쟁기 운크라(UNKRA,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종이 지원으로 전쟁 독본과 교과서를 겨우 제작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을 상기한다면 그 시기에 대한민국의 종이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포형무소는 제지와 인쇄가 가능한 기계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 공공기관이나 사설 인쇄소에 비해 종이와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었다. 그 결과 한

3) 『형정』 창간호에는 전국 각 형무소장 명의의 <축 창간> 문구가 수록되어 있다.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마포, 서울, 목포, 개성, 인천, 부천, 전주, 청주, 춘천, 군산, 영등포, 공주, 김천소년, 안동, 마산, 진주, 소록도 등 21개 형무소. 「축 창간」, 『형정』 창간호, 1952.12, 1쪽.

4) 마포형무소의 명칭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외에 경성에 독립투사와 정치범을 따로 수용할 형무소 건설 필요성 때문에 마포 공터리에 세워졌다. 기존에 경성감옥은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이 바뀌고 마포에 신설된 형무소가 경성감옥(경성형무소)으로 불리다가 해방 이후 마포형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61년 마포교도소로 개칭하였고 1963년 마포형무소 주변이 도시화 되면서 경기도 안양으로 자리를 옮겨 안양교도소로 전환되었다.

5) 「강동 폭탄 사건 주범 만 십 년 만에 가출옥」, 『동아일보』, 1931.6.25, 2면.

6) 「광명의 앞날을 위해」, 『동아일보』, 1949.10.20, 2면.

국전쟁 중에도 마포형무소는 하루 4,500련(連)의 종이를 생산<sup>7)</sup>할 수 있었고, 전쟁 직후 인쇄 시설 확충으로 월간잡지 5-6종을 그곳에서 인쇄<sup>8)</sup>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법무부 교정국 소속 마포형무소에서 제지와 인쇄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 형무소에 배포할 『형정』이 탄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물자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형정』을 발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각 기관에서 여러 자료와 매체가 필요했을 상황에서 『형정』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 매체가 당시 법무부와 법무부 형정국의 행형(行刑)에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지니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형정』의 초기 발간 상황과 수록된 텍스트의 목적과 기능, 매체의 지향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형정』 창간호(1952.12)-제8호(1953.9)는 국군이 서울 수복 후 한국전쟁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1953년 7월 휴전 선언 어간에 발행된 잡지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혼란했던 시기에 탄생했다. 이 시기는 전쟁으로 인해 국가 운영이 어렵고 이념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형무소 역시 관리 및 운영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형무소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형무소 문제에 대해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의 행형 제도를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최일선 과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간된 『형정』에 수록된 행형 관련 텍스트와 문학작품들은 당시 정치적, 이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

7) 종이 거래단위 중 하나인 1 련(連)은 500장을 의미한다. 하루 4,500 련(약 225만 장)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마포형무소의 제지, 인쇄 규모는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포형무소 제지 내월 초부터는 등장」, 『조선일보』, 1951.12.30, 2면.

8) 「각 형무소 작업시설 왜 낮잠 재우나?」, 『동아일보』, 1955.1.13, 3면.

초기 발행된 『형정』지는 두 가지 매체 전략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당시 부족했던 대한민국 교도관을 양성하고 재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교도관의 세계관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양 교육에 집중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매체 전략이 『형정』 초기 수록 텍스트에서 어떻게 발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초기 행형(行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2. 대한민국 교도관 양성을 위한 월간 『형정(刑政)』의 역할과 전략

『형정』은 1952년 12월에 사단법인 치형협회(治刑協會)<sup>9)</sup>에서 13쪽 분량으로 창간한 매체이다. 창간호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서상환(재임 기간 1952.3.5.- 1954.6.29.)의 휘호와 훈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어서 법무부 차관의 치사(致辭), 형정국장의 권두언이 이어진다. 그리고 교도관들의 교도소 임무와 관련하여 「행형의 사회화」, 「형무작업의 당면과제」, 「교화사업의 전망」, 「자료: 재소자 처우의 표준규칙」, 「행형학도에 기함」, 「교육형」, 「행형변천사」, 「실무연구」 등 실제 교도소의 현장 업무에 필요한 요소와 형무관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고하고 있다. 그 뒤에 문예 작품이 배치되어 있고 「인사이동」, 「형정소식」, 「후기」,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창간호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 잡지의 독자가 교도관과 예비 교

9) 치형협회는 최초 일제강점기인 1924년 3월 조선총독부 산하 행정국 내 설립되었다. “감옥에 들어가 죄수에게 유익을 준다고 송사 법무 당국 등 여러 인사가 치형협회라는 것을 설립하고 여러 죄수들에게 사회적 지식과 시사 등을 알려주”는 역할이라는 설립 목적을 제시했다. 「죄수를 위한다고 치형협회 새로 생겼다」, 『동아일보』, 1924.3.30, 2면. 해방 이후에도 법무부 행정국 산하에 치형협회가 계속 유지되어 기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을 지속했다.

도관임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정』은 치형협회에서 교도관을 예상 독자로 상정하여 그들이 여가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만든 단순한 교양 잡지가 아니었다. 행형 실무, 행형의 의미, 변천, 인사이동, 형정 소식에 행형학도에 대한 글까지 수록이 된 것은 이 매체가 단순 문화예술 잡지나 교양 선양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잡지가 아니라 법무부 교정국의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 특수한 발간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 상황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1951~1952년 전국 형무소 시설 중 부산, 대구, 마산 형무소만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되었고 나머지 형무소는 대부분 시설이 파괴되었거나 형무소 인력(교도관 등)이 부족하여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등 많은 피해를 겪었다. 게다가 남한과 북한이 이념 차이로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면서 그 투쟁의 상징적 결과물인 형무소는 양측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적군이 오기 전 도망간 형무관(교도관)이 있는 반면에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재소자를 지키던 교도관은 북한군에게는 반동분자가 되었고, 남한에서는 부역자이자 배신자가 되었다. 재소자들 역시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집단학살 등 남북 양측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였다.<sup>10)</sup>

이런 이중의 굴레 속에서 전쟁 휴전으로 폐허가 되었던 각 형무소는 전쟁이 소강 상태에 이르는 1952년 하반기부터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형자들을 관리할 형무관들이 대거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형무관 학교에서 형무관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게 되었다. 당시 형무관 모집 학력 기준이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공고되었는데 한국전쟁기 중학교 졸업생은 지금과 달리 인원이 많지 않았으며 사회 지식인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기본적인 지성과 인성을 갖춘 존재들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도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보

10) 전쟁기 형무소와 교도관의 구체적 피해 상황은 다음의 기사를 참고할 것. 「자유 제전(祭典)에 바친 법무검찰 우리의 희생」, 『동아일보』, 1953.6.16, 2면.

수, 근무 강도가 당시 중학교 졸업자들이 지원하기에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었을 수 있었다. 그래서 형무관 학교를 통해 형무관을 양성할 계획이었던 법무부가 당시 원하는 만큼 형무관이 충분히 모집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운영을 재개하는 형무소가 늘어나고 수형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도관 양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행정국에서는 형무관 학교의 기수별 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각 지역 별로 자체 모집을 하거나, 상이군경 등의 인원을 형무관으로 채용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즉, 당시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형무관 학교를 통해서 형무관이 양성되는 체제였지만 이면적으로는 사회 여건상 다양한 채용 경로로 형무관을 채용했으며, 이로 인해 형무관들이 짧은 시간에 임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만 받고 바로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전시 체제 하 또는 휴전 직후 형무소 수형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형무관의 기본 직능 향상, 일반 상식, 실전 상황 등에 대한 추가 교육 및 재교육의 도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초기 『형정』은 형무관 학교의 현장 근무 교본이자 설명서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형무관 학교 입교를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는 모범 교재이기도 했다. 이렇듯 『형정』이 1952년 12월에 창간한 것은 휴전으로 나아가는 시기 형무관들의 안정적 적응과 근무 능력 향상, 형무소의 복구 등 사회적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행형(行刑)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무부 행정국의 선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명분으로 『형정』은 전쟁기 물자와 인력 부족, 발간 비용 등에 대한 논란을 타파하고 다른 잡지들보다 우선적으로 발간될 수 있었다.

『형정』 창간호에 수록된 서상환 법무장관의 <석양인에정신>이라는 휘호와 함께 「수형자(受刑者)의 인권옹호(人權擁護)를 기(期)하라」는 글을 통해서 당시 법무부 교정국(정부)이 지향한 행형 방향과 형무소 운영

주안점을 판단할 수 있다.

근대문화국가(近代文化國家)의 행형(行刑)이 그들의 국민적(國民的) 의무(義務)와 권리(權利)관념(觀念)을 자각(自覺)케하여 사회복귀(社會復歸)에 치중(置重)하는 것도 여기에 유래(由來)한다. (…중략…) 특(特)히 행형관리(行刑管理)의 수형자(受刑者) 처우(處遇)에 일층(一層)의 노력(努力)과 용의(用意)가 필요(必要)할 것이다. 우리들의 민주국가(民主國家) 건설(建設)에 있어서 법무행정(法務行政)이 인권옹호(人權擁護)에 치중(置重)되므로 이 정신(精神)이 수형자(受刑者) 처우(處遇)에도 침투(浸透)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sup>11)</sup>

서 장관의 글에서 당시 정부가 지닌 국가 운영의 내적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근대문화국가”와 “민주국가”가 그것이다. 한국전쟁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 북한보다 뛰어난 문화국가임을 보여줘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무소에 수용된 재소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이슈였다. 전쟁 중에 수형자 학살, 구타, 탈옥 등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들이 형무소에서 발생했다. 휴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던 시기에 대외적으로 정상 국가임을 알려야 했고 형무소의 사상범과 전쟁 포로 등의 문제도 해결이 필요했다. 서장관은 이런 점에서 좀 더 명시적으로 “수형자의 처우” 개선을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1950년 초반 형무소의 시설이나 제도 자체도 미비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수형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지휘서신은 현장에 있는 교도관들에게는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였다. 독자인 교도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처우도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소자의 인권 향상을 요구하는 상부의 지시 사항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 기간 가장 참혹한

11) 서상원, 「수형자의 인권옹호를 기하라」, 『형정』 창간호, 1952, 2쪽.

인권 침해가 있었던 장소 중 하나가 형무소이며 사상범과 정치범 등 수용된 재소자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재소자를 직접 접촉하는 형무관의 태도와 인식 변화가 재소자의 인권 개선을 추동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현장 교도관의 인권 의식 함양과 실천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법무부 차관 정재환과 행정 국장 신언한의 글에도 이와 같은 기조가 유지되었다.

미증유(未曾有)의 국란(國亂)을 맞아 민족(民族)의 수난(受難)이 가중되고 제종전시범(諸種戰時犯)이 폭증(增)함에 따라 1층(層) 사회질서(社會秩序)의 확립(確立)과 국민생활(國民生活)의 안정상(安定上) 행정(刑政)에게 부(賦)과된 \*책(\*責)도 또한 중차대(重且大)하다고 본다. (...중략...) 금반(今般) 신발족(新發足)하는 『행정(刑政)』지가 행형인(行刑人)의 교양(教養)에 민주형정(民主刑政)의 발전(發展)에 \*실(\*實)한 자료(資料)가 되어줄 것을 신(信)하고 바라는 바이다.<sup>12)</sup>

오늘날 전(全) 행형인(行刑人)이 인격(人格)과 심성(心性)의 단정(端正)을 꾀하고 수형자(受刑者) 처우(處遇)에 대해 세심(細心)한다면 우리나라 민주행형(民主行刑)의 건설(建設)은 1단(段)의 촉진(促進)을 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다.<sup>13)</sup>

법무부 차관 정재환의 <치사>와 행정 국장 신언한의 <권두언>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는 인권옹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형무관들이 지녀야 하는 의식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형무소의 역할과 형무관의 임무에 대해 제고하는 의미이기도 했다. 사실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기 형무소는 권력에 의해 활용되기 쉬운 기관이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를 가두고 한반도 조선인의 자립 역량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운영된 악명높은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곳들이 있다.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12) 정재환, 「치사」, 『행정』 창간호, 1952, 3쪽. ‘\*’는 해독 불가 글자.

13) 신언한, 「형정쇄신(刑政刷新)의 기초(基調)」, 『행정』 창간호, 1952, 3쪽.

당시 행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문제적 간수들이 존재했다. 해방 이후 이러한 일제강점기 정치범들이 풀려나 형무소가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미 군정기에 들어가면서 다시 이념과 사상 검증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대외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대내적으로 민생 안정이 필요하게 된다. 1952년 휴전 논의 시작과 함께 전선(戰線)이 고착화되면서 형무소 본연의 역할인 “사회질서의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치중해야 할 시기가 비로소 도래한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의 안정은 정부에서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이었다. 그래서 형무소 시설이 복구되고 교도관도 각 지역 별로 근무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과는 다른 행형(行刑)을 펼쳐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월간 『형정』을 통해 “형정쇄신”을 표명하고 재소자의 처우와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이처럼 창간호에서 행형을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 차관, 형정 국장의 글은 사회적으로 교도관이 지녀야 할 직업의식과 행형의 대의적 명분이 되었다.

또 다른 측면 하나는 교도관의 내적 세계 인식에 기인한다. 행형 기술과 방법을 아무리 익히더라도 자기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며 제도와 의식의 불일치를 야기한다. 내적 세계 인식이 바로 “행형인의 교양 양성”을 통해 “인격과 심성의 단정”을 도모하고 수형자에 대한 “세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형정』에 문사들의 문학작품과 다양한 분야의 교양 수양을 위한 글이 수록되었다. 즉, 문학작품과 그 외 다른 글이 단순히 유희나 오락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타자에 대한 교도관의 내적 인식 확장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형정』에 수록된 작품들의 매체 내부에서 작동하는 이면적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 3. 『형정(刑政)』 수록 문학작품의 심성의 단정(端正)과 세심(細心)

이 장에서는 창간호부터 8호까지 수록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8호까지 다양한 필자들의 글이 수록되었는데 그 중 창간호와 8호는 시인이나 소설가 등 전문 작가가 아닌 일반 필자(교도관 등)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창간호는 1952년 12월 한국전쟁이 진행 중인 시기였으며, 8호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끝난 이후인 1953년 9월에 발간되었다.

창간호의 경우 문학작품 이외 수록 글의 필자들 역시 문필가들이 아닌 행형(行刑) 업무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형무소 운영의 혼란에 기인한다. 한국전쟁 직후 서울이 함락되고 다시 인천상륙작전으로 1950년 9월 29일 서울을 수복한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1년 다시 전선이 밀리면서 1·4 후퇴로 서울을 잃었다. 3월 14일에 다시 수복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치열한 전투로 인해 남한 대부분의 형무소가 폐쇄되고 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복구하고 다시 정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매체 발간은 기획, 인쇄, 발행의 과정이 있기에 기계, 종이, 전기 등 물자의 보급까지 원활해야 가능한 일이다. 1952년 7월부터 휴전협정이 시작되면서 이전과 같은 전면전은 아니었지만 38선을 가운데 두고 전선(戰線)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었다.

매체 발간에는 최소 3-4달의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형정』 창간 시기(1952년 12월)를 고려하면 휴전 논의가 시작되고 형무소를 정비하면서 매체 발간 역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 수복 후 형무소 복구가 시작되었지만 마포형무소에서 바로 매체를 인쇄 및 발간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정』 창간호에 전문 문사(文士)나 수준 높은 작품이 수록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매체가 정상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국 내부나 관련 필자<sup>14)</sup>를 섭외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창간호를 지나서 2호는 형식이나 분량 면에서 창간호보다 훨씬 진일보했다. 2호는 총 37쪽으로 분량 면에서 창간호의 3배에 이른다. 또 교도관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글부터 형무소 직원 교육 등의 글이 실리고 <회원문원>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교도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 특징이 있다. 창간호와 달리 전문 작가들의 문학작품이 수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조는 3호에서 다시 <회원문원>이 사라지며 6호까지 전문 작가의 작품이 주로 수록되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7호에서 다시 변화를 꾀하며 교양 관련 <신영화 감상>, <법창만화> 등 새로운 코너가 들어갔으며, 8호에서는 각 형무소 교도관들의 참여를 이끄는 <회원작품>, <교양에의 길>, <일선통신> 등을 신설하여 대대적인 잡지의 형식 변화를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9호(1953년 11·12월)부터는 각 지역 형무소에 근무하는 교도관과 형정국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필자로 나서 다양한 양식의 글을 수록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형정 현장의 목소리가 『형정』지에 대거 수록되면서 교도관 재교육과 국가관 형성의 큰 목적에서 더 나아가 교양 함양과 여가생활에까지 매체의 성격을 확장시켰다. 이에 따라 분량 역시 9호 110쪽, 10호 103쪽 등 8호까지 각 호별 평균 쪽수보다 2~3배 많은 분량으로 9호 이후로 『형정』은 형무관들을 위한 잡지임을 표방하며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정전협정과도 관

14) 창간호의 문학작품 필자인 최동원과 편승원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이나 분량, 문학의 질적 측면에서 내부 필자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본 필자가 확보한 창간호는 판권지의 소실로 인쇄소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 수복 이후 1951년 12월 마포형무소가 개소하고 1952년 1월에는 마포형무소 제지공장에서 종이 생산이 가능했음을 볼 때 『형정』 창간호는 마포형무소에서 간행되었음이 분명하다. 참고로 『형정』지에 인쇄소가 명시된 것은 3호 마지막 장 광고에 “<축 발전> 흥산(興産)지업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흥산지업사에 마포형무소 제지공장이 소속되어 있다.

련이 있다. 1953년 8월 14일까지 유지된 부산 임시수도 체제에서 서울로 완전히 환도한 후 정부 각 기관과 단체가 서울에서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다. 정전협정 이전까지 포로 석방, 대통령 특사 등 일련의 사건으로 형무소 운영의 불확실성이 점차 사라지고 형정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또한 행형의 관점에서도 앞서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전쟁기 수행자를 관리했던 상황과는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9호의 체제 변화와 필자 확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형정』 창간호부터 8호까지 수록된 문예 작품의 목록이다.

번호	권호 (년월)	작가	제목	수록 페이지	장르
1	창간호 (52.12)	최동원	반격	10	장편소설 (掌篇小說)
2		편승원	밤을 직히라니	10	시
3	2호 (53.1)	신효철	고향시절	30-31	회원문원 (會員文苑)
4		조병화	회랑도로(廻廊道路)	32	시
		김광주	양자강연안(揚子江沿岸)	33-36	단편
5	3호 (53.2·3)	조병화	남포동	46	시
6		김광주	인생미련초(人生未練抄) - 어느 대학교수의 수기	47-60	창작
7	4호 (53.4)	박목월	저음(低吟)	31	시
8		박기원	석양(夕陽)	32-36	창작
9	5호 (53.5)	박화목	기도(祈禱)	31	시
10		박영준	가을바람	32-36	창작
11	6호 (53.6·7)	설창수	눈	45	시
12		김광주	여인 혼자서 바다를 가다	46-50	창작
13	7호 (53.8)	황인호	무제(無題)	39	시
14		김평	감화원의 소녀들: 천사들의 왕국	19-22	신영화감상
15		이봉구	광릉림과 나와	27-31	법창만화 (法窓漫話)

16	8호 (53.9)	최정희	꽃과 별	25-28	
17		박기원	폐허에 와서	29	시
18		신효철	실소기(失笑記)	40-41	회원작품
19		김명범	회향곡(懷鄉曲)	41-42	회원작품
20		이승계	고망대(高望臺)	42	회원작품

먼저 각 호에 실린 작가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당시 『형정』 발간에 관여했던 필자들의 특성과 수록 작품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인으로는 조병화, 박목월, 박화목, 설창수, 황인호, 최정희, 박기원 등의 필자가 등장하고 소설가로는 김광주, 박기원, 박영준 등이 참여했다. 이들 중 조병화, 박목월, 박화목, 박영준, 최정희 등은 전쟁기 종군작가로 활동했고, 설창수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경남일보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인으로 활동했으며, 경향신문 문화부 부장이었던 김광주나 서울신문 문화부 기자였던 박기원은 한국전쟁기 부산에서 피란 문단 작가로 활동했다. 황인호는 <대통령 찬가>를 작사한 작가이다. 대부분의 『형정』지 초기 필자로 활동한 작가들은 전쟁기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연을 맺었거나 활동하면서 교류가 있었던 문인들이다.

창간호에 실린 최동원의 「반격」은 당시 손바닥만큼 짧은 소설이라는 의미로 장편소설(掌篇小說)로 불린 콩트와 같은 소설이다. 부산으로 전근 온 대용이라는 인물은 친구 승철이 근무하는 고아원의 직원 미스 H를 마음에 두고 있다. 승철을 통해 미스 H와 만남을 가지려 마음 먹었지만 승철은 미스 H를 돈, 직업, 학벌로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용은 친구 승철을 이면(裏面)적 존재로 비난하며 반격을 가한다. 이 소설은 당시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학벌, 재산, 직업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세속적 현실을 비판하면서 대용의 인간 됨을 부각하고 있다. 1950년대 세태와 함께 인간의 생사를 가르는 전쟁 중에도 물욕과 권세를 탐하는 이들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편승원의 「밤을 직히라니」는 교도관인 화자가 야간에 감옥을 지키면서 떠오르는 단상을 시로 읊긴 작품이다. 화자는 “수인(囚人)들 콧소리를 직히라니/단 하나 사명(使命)을 띠고 섰는”을 통해서 야간 근무 중인 상황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 문학적 수사나 함축적 의미가 내재된 작품은 아니지만 『형정』에서 지향하는 교도관의 직업의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2호에서 김광주의 「양자강연안」은 1952년 출간한 단편집 『결혼도박』에 실린 작품이다. 이 소설은 작가의 일제강점기 중국 생활이 녹아 있는 작품으로 “상해 시절 발표한 초기소설과 연관성”<sup>15)</sup>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특히 애국지사의 독립운동과 그의 가족 수난을 그리고 있어서 전쟁기 귀환 동포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당시 작품을 중복 투고 또는 게재하던 관례를 감안하면 1952년 단편집을 낸 후 곧바로 1953년 1월에 『형정』지에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조병화의 시 「희랑도로」는 가을날 목표와 활기를 잃은 희랑도로의 분위기를 묘사한 작품이다. 낙엽이 지고, 사랑도 모르고, 사랑을 잃은 채, 사랑도 없이 눈을 감은 희랑도로지만 화자는 청자에게 외로움을 참고 종점도 묻지 말고 그 길을 내려가기를 요청한다. 2호에 수록된 두 작품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두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쟁기 부산으로 피난 왔던 두 작가는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어 서울 수복 후 돌아가서도 이들은 여전히 좋은 문우의 관계를 유지했다. 참고로 두 사람은 초기 『형정』지에 다양한 작품들을 수록했다.

2호의 시, 소설 필자들이 3호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김광주는 이후에도 『형정』에서 소설, 영화 감상 등 다양한 지면에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3호에 수록된 조병화의 시 「남포동」은 시인이 부산으로 피난왔을 때 체험과 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15) 진선영, 「해방기 김광주 ‘귀환 삼부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8, 한중인문학회, 2018, 52쪽.

아무렇게나 정에 엉겨  
파란 등\*불이 마주 뵈는 인간의 긴 계곡을  
벗이 그리워  
이렇게 맑은 손을 내가 나를 잡고  
화폐로 되어버린 인간 금지구역에 선다.

야경 열시 부근.

남포동 거리로 밀리는  
어둠에 익은 얼굴들에 끼어  
나는 벗을 찾고 벗은 나를 찾아  
인간의 부채를 걸머진채 또하루 인생이 저문다.

돈과 우정의 거리에서  
고독을 \*\*하려드는 내 목소리 속에  
그 많은 밤  
벗들이 남기고 돌아간 주막의 웃음소리가 들린다.<sup>16)</sup>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남포동은 인간과 인간 금지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즉, 개인의 욕망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순수하게 벗을 찾아 나선 나의 손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암시하고 있다. 인간이 존재하던 긴 계곡에서 함께 했던 벗이 그리운 화자는 그곳을 찾지 못하고 돈과 우정이 뒤섞여 있는 남포동 거리에서 친구와의 인간적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인간의 부채(負債)”에 빠진 현실이다. 줄어들지 않는 인간 부채에 허덕이던 화자는 그것을 걸머진 채 인간을 만나지 못해서 고독함을 느낀다.

이 작품은 부산으로 피난 왔던 피난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작품이지만 『형정』에 수록된 교도관의 세계관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관련지어 살펴보면 전쟁으로 비인간화된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타인에 대

---

16) 조병화, 「남포동」, 『형정』 3호, 1953.3, 46쪽.

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교도관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들이 교도소에서 마주치는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기는 하지만 교도관에게 죄를 지은 존재는 아니다. 수형자들은 외부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교도관은 행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논리가 수형자들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교도관은 당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렇게 비인간화된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군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형정』에 수록된 이유 역시 교도관의 세계관 확립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김광주의 「인생미련초-어느 대학교수의 수기」는 『형정』 3호(1952.2·3)에 발표된 후 김광주의 단편집 『연애·제백장』(수문각, 1953.12.)에 재수록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대학교수인 아버지가 이제 막 결혼식을 한 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띤 소설이다. 피란 과정에서 아내를 여의고 혼자 키운 딸을 결혼시킨 후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이 소설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설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당시 인습과 전쟁으로 인한 피란민의 고난한 삶의 장면들을 통해서 개인의 비극 체험이 전쟁을 겪은 한국인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상처로 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람이란 언제나 제자신만을 남다르게 남보다 특수하게 뛰어났다거나, 남에 없이 슬프다거나 혹은 남에 없이 즐겁다거나—이렇게 생각하는 미련(未練)을 죽는 날까지 버리지 못하고 그 미련 속에서 질질 끌려가며 사는 것뿐이다.<sup>17)</sup>

인생이 역시 끈끈히 살길을 찾고, 건전히 살길을 찾고, 보람 있게 살길을 찾자는 노력-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이 애비는 늘 생각하는 것뿐이다.<sup>18)</sup>

17) 김광주, 「인생미련초」, 『형정』 3호, 1953.3, 47쪽.

18) 앞의 책, 50쪽.

지극히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있어서 평범하면서도 공교로운 운명이었다. 그 여인은 확실히 양가집 부인이었고 상당히 호화로우며 행복스러운 가정생활을 해온 사람으로 역시 「육·이오」 때 기동처럼 믿고 살던 남편을 놈들에게 빼앗기고, 넷이나 되는 아들딸 중에서 위로 들은 것 어버리고, 끝으로 둘 어린 남매를 거느리고 부산까지 흘러 내려와서 생활에 쪼들리어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과도 속에서 처음으로 주장에 나온 여성이었다.<sup>19)</sup>

전쟁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습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자 도덕의 가치와 기준이 애매모호한 시기였다. 대학교수인 서술자가 피란 중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유일한 혈육인 딸을 키워 결혼시켰다. 그는 그동안 도덕적, 합리적 판단으로 현실을 살아왔지만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그 술집 여인은 전쟁으로 남편과 4남매 중 둘을 잃고 어린 남매를 길러야 했다. 그래서 돈벌이가 되는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학교수를 비판할 수 있는가? 술집 여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이런 각각의 가치판단 유보의 상황이 전쟁기에 수없이 만들어졌다. 평상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 가치의 혼란 속에 놓일 수 있다. 교도관 입장에서 수형자를 혐오하고 거부하고 배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수형자가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도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도관은 사회 세태나 세계 인식에 있어서 균형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형정』에 수록된 이와 같은 작품들이 교도관의 균형적 세계관과 타자 이해의 목적으로 수록한 작품임을 이해할 것이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 시기의 형무소는 해방 이후에도 행형의 목적과 방법이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하게 가치판단이 혼란한 시대를 드러내는 작품이 있다. 『형정』 5

---

19) 앞의 책, 57-58쪽.

호(1953년 5월)에 수록된 박영준의 「가을바람」이라는 제목의 소설이다. 주인공인 부부는 원래 부부가 아니었지만 아내의 전남편이 전장(戰場)에서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고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아내에게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어린 남매가 있었다. 현재 남편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지만 분별없이 아이들을 키운다. 여기까지는 매우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가정이다. 그런데 전사 통지를 받았던 전남편이 갑자기 등장하며 가치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춘식이 잘했네. 마음 놓고 살게.” 그러나 그 말속에는 가장 큰 원망과 저주가 섞여 있었다. 그 원망과 저주를 냉정한 의지로 억누르려는 노력이 떨리는 목소리에 그대로 나타났다. 그런만큼 춘식은 무어라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있으면서도 입을 열지 못했다.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을 때 총뎌 사나이가 처음과 달리 은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야 나는 닷새 밖에 휴가를 얻지 못했어.” (…중략…) “미안하네. 자네가 전사했다는 통지가 있구 또 나두 그새 상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걸세 용서하게-”<sup>20)</sup>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 해체와 새로운 가족의 결합은 당시 부도덕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족 서사는 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위의 작품과 같이 가치판단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즉,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형식과 모양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판단의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춘식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친구의 아내와 가정을 이루었고 친구는 자신의 처지를 객관화하여 친구 춘식과 아내의 가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 시대의 가치는 생존이 가치의 기준이 되었다. 물론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교도관은 당시 짧은 교육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학

20) 박영준, 「가을바람」, 『형정』 5호, 1953.5, 34쪽.

력 수준이나 세계에 대한 이해, 인지 능력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었다. 즉, 문학을 통한 감동, 감응, 해석,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록 텍스트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 『형정』에 실렸던 문학작품들은 교도관의 세계관과 사회적 시각을 확장시킴으로써 교양 능력을 함양하고자 했던 목적을 확인했다. 또한 가치판단의 혼란 시대에 수형자에 대한 개인적 가치판단을 유보하고 그들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교도관이 수형자들을 판단하고 배제한다면 당시 행형의 목표인 교화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형정』에 수록된 문학작품들은 가치 혼란의 긴장을 늦추고 행형의 목표를 달성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 4. 나가며

본 논문은 한국전쟁기 법무부 형정국에서 교도관 교양 함양과 양성에 활용하기 위해서 발간한 월간 『형정』의 창간호부터 제8호까지를 분석하였다. 월간 『형정』은 1952년 12월에 창간하여 중간에 제호를 『교정』으로 바꿔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잡지이다. 1950년대 당시 교도소와 교도관을 양성하는 교도관 학교 등에 보급되었던 잡지로 재소자 교양 잡지인 『새길』과는 다른 매체 특성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전쟁 중간에 창간된 잡지인 『형정』은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당시 교도소를 관리하는 교도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입 교도관의 현장 적응을 돕고, 교도관이자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추며, 당시 정부가 요구하는 시대상과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교도관을 양성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매체 특성을 기조로 『형정』지에는 당대 유명 작가와 학자들의 글이 수록되었으며 특히 종군작가의 작품이 다수 수록되었다.

수록된 작품과 글을 바탕으로 초기 『형정』지를 살펴본 결과 교도관의 심성 단련에 초점을 맞추어 단정(端正)과 세심(細心)에 많은 부분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초기 『형정』은 단순히 교도소 교도관과 교도관 학교 생도들에게 교양과 오락을 목적으로 창간된 잡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전쟁기 죄수와 포로를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진 교도관들이 충실한 국가관과 직업관을 갖추고 있어야 교도소의 효율적 통제와 감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식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교도관들은 우선적으로 국가 이데올로기를 확고히 갖추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바탕으로 불온, 반동, 폭력에 맞설 수 있는 지적 능력, 업무능력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기르고 당시 행형이 주목했던 인권 문제 등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형정』과 같은 매체는 교도관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형정』 창간호, 1952.12.  
『형정』 2호, 1953.1  
『형정』 3호, 1953.2·3  
『형정』 4호, 1953.4  
『형정』 5호, 1953.5  
『형정』 6호, 1953.6·7  
『형정』 7호, 1953.8  
『형정』 8호, 1953.9

### 2. 단행본 및 논문

- 강성현,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준현, 「1950년대 전향자-문인의 자기서사 재구성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6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7-38쪽.  
법무부, 『한국교정사』, 1987.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오현석, 「월간 『새길』 수록 연재소설 「빨치산」 연구」, 『한국문학논총』 98, 한국문학회, 2024, 171-200쪽.  
진선영, 「해방기 김광주 ‘귀환 삼부작’ 소설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8, 한중인문학회, 2018, 45-67쪽.

### 3. 기타 자료

- 「강동 폭탄 사건 주범 만 십 년 만에 가출옥」, 『동아일보』, 1931.6.25, 2

면.

「광명의 앞날을 위해」, 『동아일보』, 1949.10.20, 2면.

「각 형무소 작업시설 왜 낮잠 재우나?」, 『동아일보』, 1955.1.13, 3면.

「죄수를 위한다고 치형협회 새로 생겼다」, 『동아일보』, 1924.3.30, 2면.

「자유 제전(祭典)에 바친 법무검찰 우리의 희생」, 『동아일보』, 1953.6.16,  
2면.

「마포형무소 제지 내월 초부터는 등장」, 『조선일보』, 1951.12.30, 2면.

<Abstract>

A Study on the magazine strategy of the  
『Penal Administration』 for the training of  
Korean prison guards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Oh, Hyoun-suk\*

This paper analyzes the monthly magazine 『Penal Administration』,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during the Korean War to cultivate and train prison officers, from its first issue to the eighth issue. The monthly 『Penal Administration』 was first published in December 1952 and has been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under the title 『Correction』 to this day. This magazine was distributed to prisons and the Legal Training Institute, which trains prison officers. It has different media characteristics and nature from 『New Life』, a magazine for inmates. 『Penal Administration』, a magazine published in the middle of the Korean War, aimed to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of prison officers managing prisons in a chaotic era, help new prison officers adapt to the field, cultivate prison officers as qualified public officials, and foster prison officers who internalize the zeitgeist and ideology demanded by the government at the time. Based on these media characteristics, 『Penal Administration』 contained articles by famous writers and scholars of the time, and in

---

\* Pusan National University.

particular, many works by war correspondent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arly 『Penal Administration』 based on the works and articles contained, it can be seen that a large part of the paper was devoted to the mental discipline and meticulousness of prison officers.

Key Words: 『Penal Administration』, 『Correction』, 『New Life』,  
Korean War period, prison guards, prison, prisoners,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Corrections, prison  
literature, war writer

■ 논문접수 : 2025년 02월 03일

■ 심사완료 : 2025년 04월 15일

■ 게재확정 : 2025년 04월 15일